

<<내신 기출 국어 신사고-하편>>

<차례>

6. 나의 문학, 나의 꿈

- (1) ❶ 그 사람의 손을 보면 ----- 1쪽 (16문제)
- (1) ❷ 엄마의 말뚝 2 ----- 7쪽 (39문제)
- (2)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 27쪽 (3문제)

7.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 (1) ❶ 향가와 시조 ----- 31쪽 (68문제)
- (1) ❷ 관동별곡 ----- 53쪽 (65문제)
- (2) 유자소전 ----- 77쪽 (22문제)

8. 국어의 어제와 오늘

- (1) ❶ 국어의 변천 ----- 91쪽 (61문제)
- (1) ❷ 한국어의 언어 활력 ----- 106쪽 (3문제)
- (2) 담화 관습과 의사소통 문화 ----- 109쪽 (4문제)

10. 잘 읽고 잘 쓰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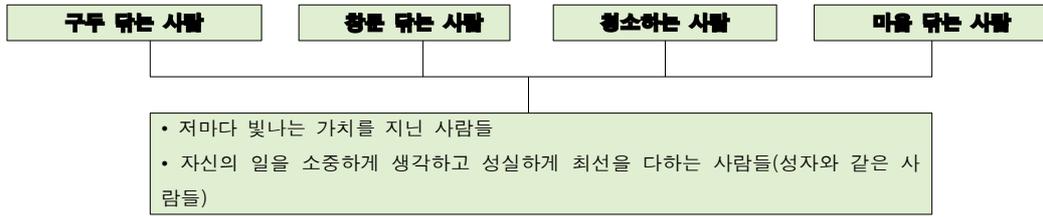
- (1) 매체 평가하며 읽기 ----- 113쪽 (3문제)
 - ▶ 정답-----118쪽
 - ▶ 해설-----[홈피에 업로드]

(출시 버전: 2020.08.02.) 이전 버전의 오류는 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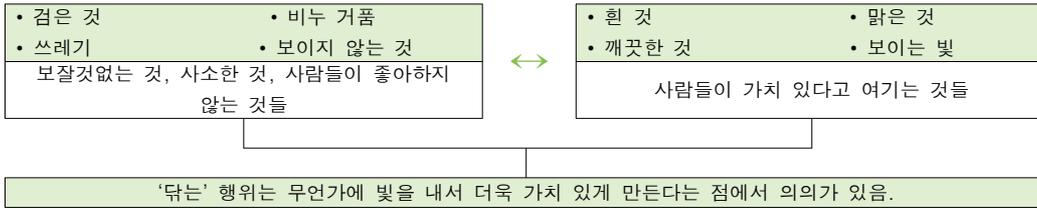
문제를 풀기 전에 홈피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01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02 '대립적인 시어의 사용'



03 표현 방식과 효과

	표현 방식	효과
시어, 시구, 시행, 통사 구조 등의 반복	'~는 사람', '~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빛이 난다', '~은 아니다'와 같은 시어와 시구, 시행을 반복하고 1~4연은 통사 구조가 반복됨.	• 반복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함. • 같은 시어나 시구, 유사한 구조 등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함.
대조적인 시어의 사용	'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과 '흰 것, 맑은 것, 깨끗한 것, 보이는 빛'의 대조와 '빛이 난다'와 '빛나는 것은 아니다'의 대비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일상적이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부각함.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천양희,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현고등학교 (서울)

1.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호박엿 파는 젊은 부부 / 외진 길가에 손수레 세워 놓고 / 열심히 호박엿 자른다. /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 어찌자고 자꾸 잘라 내는 것일까
- ② 거기 나무가 있었네. / 노을 속엔 /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 붉은 노을이 금관약기로 소리로 퍼지면 / 거기 나무를 세워 두고 /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 ③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 흙 한 줌 돌 한 개 들성거리지 않는다 /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 지구처럼 부동(不動)의 자세로 떠간다. /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 기분 좋게 옆에서 /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다.
- ④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 그 소리 걷히고 맑은 가을이 /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 발길에 눌러우는 내 울음도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⑤ 음(陰) 오월에도 초닷새 수릿날엔 / 아내여, 그대는 춘향이 되라. / 그러면 나는 먼 숲에 숨어들어 그대를 바라보는 / 이 도령이 되리라.

영훈고등학교 (서울)

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어휘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 ② 대비되는 색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 ④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인간 삶의 어두운 측면을 짚고 있다.
- ⑤ 자조하고 보잘 것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들이라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구현고등학교 (서울)

3. <보기>의 윤아가 답으로 말할 수 있는 감상과 평가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보기〉

선생님: 아래 표와 같은 요소들을 활용하여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체크된 항목을 근거로 위 작품 을 감상하고 평가해 볼 학생 있나요?

윤 아: 저요! 이 작품은 ()

근거로 활용할 요소 선택하기
<p><작품 안의 요소></p> <p>[] 작품에 담긴 주제</p> <p>[] 시어나 시구의 함축적 의미</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미지, 운율</p> <p>[] 구성상의 특징</p>
<p><작품 밖의 요소></p> <p>[] 작가에 대한 연구 및 비평</p> <p>[] 작가의 다른 작품</p> <p>[]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p> <p>[]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사회적 현실</p>

비전고등학교 (경기)

4. 위 시에 대한 독자의 반응 중 감상 관점의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직업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 왔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보게 되었어.
- ② 1연에서 4연까지 비슷한 내용과 구조가 반복되고 5연에서 구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 ③ 작가는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를 거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물질적 가치나 성과, 외모나 높은 지위 등 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요즘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어.
- ⑤ 고정 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을 바라볼 필요성을 깨닫고, 어떠한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어.

비전고등학교 (경기)

5. ㉠의 함축적 의미를 2어절로 쓰시오.

사곡고등학교 (경북)

6. 위 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②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 ③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여 전달했다.
- ④ 화자가 시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일체감을 나타냈다.
- ⑤ 특정 소재를 통하여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나타냈다.

배재고등학교 (서울)

7. <보기>를 기준으로 위 시를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품 안의 요소>

- ㄱ. 시어나 시구의 함축적 의미
- ㄴ. 이미지, 운율, 어조, 분위기
- ㄷ. 구성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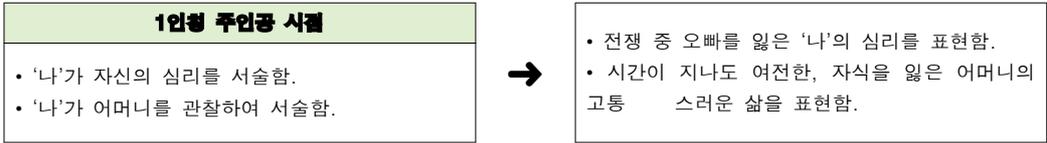
<작품 밖의 요소>

- ㄹ. 작가에 대한 연구 및 비판
- ㅁ. 작가의 다른 작품
- ㅂ.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사회적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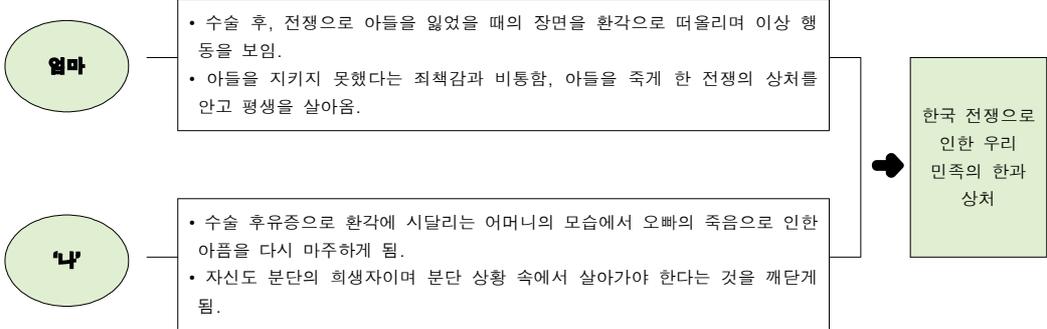
- ① 학생1: 동일한 시어나 시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데서 운율이 형성되어 있어.
- ② 학생2: 물질적 가치나 외모 등 외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어.
- ③ 학생3: 1연부터 4연까지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5연에서 구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 ④ 학생4: 나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을 거야.
- ⑤ 학생5: ‘빛이 난다.’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므로 저마다 빛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시로 볼 수 있어.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01 작품의 시점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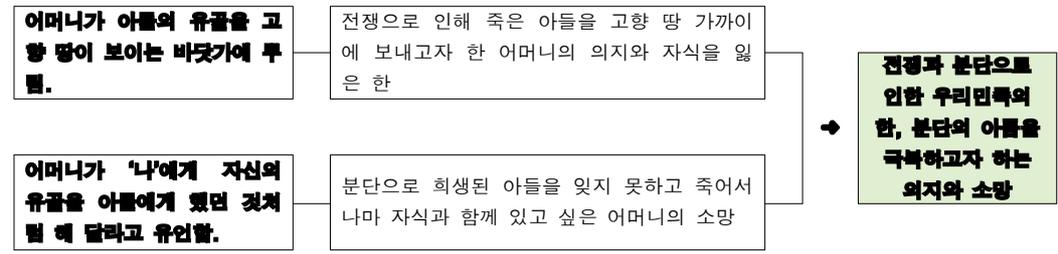
02 주요 등장인물



03 수술 후 어머니의 기이한 행위에 대한 간호원과 '나'의 대응

어머니의 행위	간호원	'나'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취 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체온과 맥박만 확인함. •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나'를 쓰아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 달라고 조름. •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수면제나 주사를 놓아 달라고 요청함.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괴물하게 불부림치고 기성(奇聲)을 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질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곧 나아질 것으로 판단함. • 어머니의 사지를 꾀고 묶고 병실을 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 때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환각으로 나타난 것임을 앎. • 아무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음.

04 작품의 시점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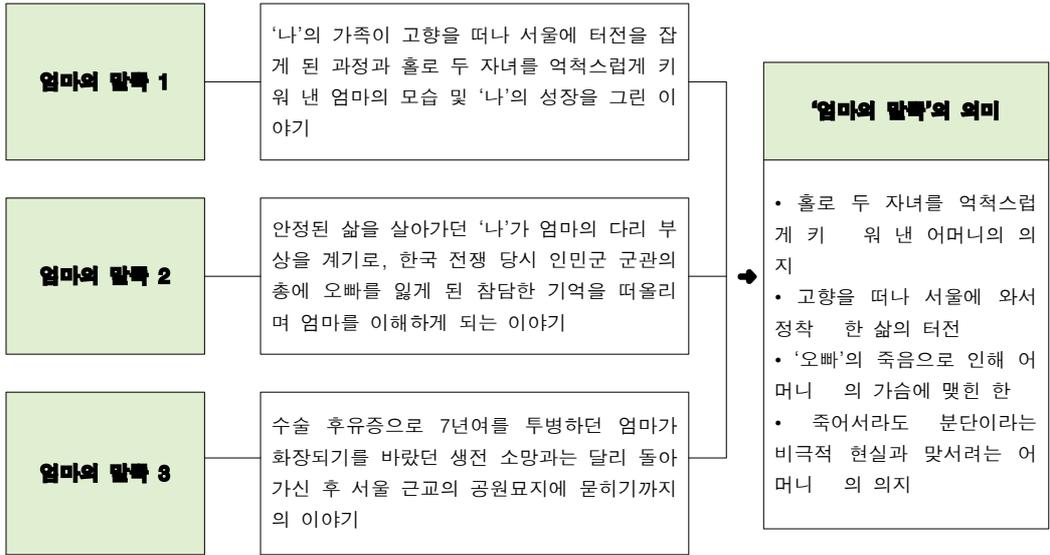


05 '엄마의 말뚝 2'의 구성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p>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 '나'는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듦.</p>	<p>외출에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서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감.</p>	<p>큰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전쟁 중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 의식이 돌아가 환각 증세를 보임.</p>	<p>한국전쟁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탈출한 뒤, 군관에게 들켜 총에 맞아 숨짐.</p>	<p>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뺏가루를 북쪽의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 달라고 말함.</p>

* 이 작품은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전쟁 당사를 회상하는 역순행적구성을 취하고 있다.

06 '엄마의 말뚝' 연작의 전체 이야기와 제목의 의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 된다. 안 돼. 이노움.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이노움.”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奇聲)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 기구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솟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꽂꽂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예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

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 먹었다. 이걸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나)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역을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2’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장면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전쟁의 참상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2. 뒷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며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전환시켜서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내적 독백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머니와 서술자의 다양한 과거 경험들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3. 뒷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울케는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오빠’를 확장하게 되었다.
- ② 나는 개풍군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오빠’의 유골을 뿌린 적이 있다.
- ③ 어머니는 악몽으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어서 입원하게 되었다.
- ④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 ⑤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4.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효과음을 삽입하는 것도 좋겠군.
- ② 영이: 병원을 배경으로 촬영해야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의상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
- ③ 순이: 간호사들의 설득에 따라 안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내야겠어.
- ④ 한이: 간호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어머니를 침대에 묶는 극적인 상황에 어울릴만한 배경 음악을 삽입해야겠어.
- ⑤ 통이: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는 환자인데 하지만 과거에 험싸인 상태이기 때문에 광기에 가까운 연기를 하도록 지시해야 될 것 같아.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5. 뒷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간호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군.
- ②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군.
- ③ 병원에서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군.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선과 악에 대한 역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군.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군.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6. ‘오빠’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빠’는 학교에서는 수재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는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다. 한때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때문에 6.25 전쟁 때, 서울이 인민군 치하에 놓이게 되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인민군이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다리만 겨냥하고 총을 쏘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국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두리째 인생이 망가지버린 비운의 인물이다.

- ① 어머니의 입원을 계기로 모녀에게는 ‘오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
- ② ‘오빠’에 대한 원통함과 집착이 어머니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되살아 난 것이다.
- ③ ‘오빠’가 죽어가며 느꼈을 아픔이 어머니의 다리로 전이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④ 어머니와 나는 ‘오빠’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 ⑤ 윗글은 어머니와 딸이 ‘오빠’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처를 견디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가매장(假埋葬)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상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가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세 편의 중단편들로 이루어진 연작소설 중 두 번째 작품이다.
- ② 연작 속 세 작품이 모두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편이라도 빠지면 서사적 완결성이 부족하다.
- ③ 작가 박완서는 한국 전쟁과 민족 분단,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많이 썼다.+
- ④ 제목 ‘엄마의 말뚝’은 아들의 죽음으로 가슴에 말뚝처럼 박힌 엄마의 한을 의미한다.
- ⑤ 전쟁에 대한 체험을 개인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민족적인 보편성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의 서술 전략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자.
- ㄴ.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자.
- ㄷ.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 ㄹ. 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서술을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돕자.
- ㅁ. 사건 전개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자.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ㅁ

당곡고등학교 (서울)

9.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해, 강화도에서, 갈 수 없는 고향 쪽으로 뺏가루를 날리는 일을 의미한다.
- ② 어머니가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그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 ③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선영에 묻히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한을 푸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④ 어머니가 나에게 ‘그 짓’을 부탁하는 것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행위이다.
- 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형식적 구호로만 행세하고 있는 ‘통일’을 생생하게 꿈꾸게 하기 위한 행위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을 감상하는 태도로 잘못된 것을 2가지 고르면?

- ① 문학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논리적인 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타당성을 평가하면 곤란하다.
- ②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체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③ 작품을 감상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히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해야 한다.
- ④ 작품을 수용할 때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⑤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해석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사곡고등학교 (경북)

11.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엄마의 증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 ② 자신이 죽어서나마 먼저 죽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어머니의 의지만은 꺾을 수 없는 상태이다.
- ③ 한국 전쟁으로 신체적 질병을 얻은 유공자들에게 국가적 보상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 ④ 어머니의 광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이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⑤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은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한으로 남아 있다.

01 구성 요소에 따른 작품 분석

향작 시기	신라 경덕왕 때
화자	누이의 죽음으로 슬픔과 비탄을 느끼다가 이를 종교적으로 초극함.
제목의 의미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는 노래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 • 한 가지: 같은 부모 • 미타찰: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도
어조	애상적, 의지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 '잎', '한 가지'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 • 10구체 향가의 특징인 '낙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함.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02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변화

구	감정 및 태도
1~4구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혈육의 정
5~8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
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 의지적 태도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이를 초극하려는 내면적 의지를 드러냄.

03 10구체 향가와 평시조의 비교

10구체 향가	평시조
1~4구	초장
5~8구	중장
9~10구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를 둠.)	종장 (종장의 첫머리는 3음절이며, 감탄사를 두기도 함.)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장장 구조 • 시상 전개 방식에서 향가의 9, 10구와 시조의 종장은 공통적으로 시상을 집약하고 마무리하는 기능을 담당함. 	

01 구성 요소에 따른 '십 년을 경영하여~' 분석

항작 시기	조선 시대
화자	10년 동안 계획하여 자연에 은거하여 살고자 함.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려 삼간: 세 칸으로 된 작은 초가. 청빈한 삶을 의미함. • 달, 청풍, 강산: 더불어 살고 싶은 자연
어조	관조적, 풍류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하나된 몰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함.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옮김. •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 혼 간'과 같이 반복과 열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함.

→

주제
자연에
귀의하여
안분지족
하는 삶

02 구성 요소에 따른 '동짓달 기나긴 밤을~' 분석

항작 시기	조선 시대
화자	동짓달의 긴 밤을 보내며 임을 그리워함.
시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풍 니불: 봄바람 같이 따뜻한 이불 • 서리서리, 구뿔구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의태어 • 어론 님: 사랑하는 임, 정을 나눈 임
어조	감상적, 낭만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변용하여 표현함. • 의태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함.

→

주제
임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03 두 시조에 드러나는 참신한 발상

'십 년을 경영하여~'	'동짓달 기나긴 밤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에게 방을 내어 준다고 표현함. • 방이 부족하니 '강산'은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겠다며 재치 있게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 개념인 '밤'이라는 시간에 '허리'가 있고 그것을 베어 낼 수 있다며 구체화하여 표현함. • '서리서리', '구뿔구뿔'과 같이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함.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몰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

(나)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송순

(다)

㉤동지(冬至)스들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뉘구뉘 퍼리라.

-황진이

문산수역고등학교 (경기)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현실에서의 무상감으로 인해 종교에 귀 의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② (가)에서는 헤어진 대상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태도가 드러나지만, (다)에서는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향토성이 드러나는 지명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토속적 아름다움을 잘 살려냈다.
- ④ (나)는 의인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는 밤(夜)에 대한 인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 ⑤ (가)는 (다)와 창작시기와 작가층은 다르지만 우리글을 표기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문산수역고등학교 (경기)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누이가 요절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은 시적 대상이 한 부모에게 낯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③ ㉢은 화자가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은 인격이 부여된 자연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은 임과 이별한 부정적 시간으로서 화자의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문산수역고등학교 (경기)

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나타나 있다.
- ③ 반복과 연쇄를 통해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④ 화자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현실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나타나 있다.

문산수역고등학교 (경기)

4. (나)의 표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다양한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
- ㄴ.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ㄷ. 추상적인 개념을 만질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다.
- ㄹ. 자연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표현을 통해 물아일체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산수익고등학교 (경기)

5. <보기>를 참조하여 (가)와 (나), (다)의 의미 구조의 계승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장 발달된 향가 형식인 10구체 향가는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된 형식인데, 마지막 의미 단락인 낙구에 '아으'등의 감탄사를 두어 앞에서 발단, 전개해 온 시상을 전환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정과정'과 같은 향가계 고려 가요 및 시조에 이어졌다. 시조에 와서는 종장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거나, 꼭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3.5(6).4.3의 음수율을 나타내어 마무리하는 형식을 보여주었다.

- ① (가)는 10구체 향가로 4-4-2의 3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와 (다)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첫 번째 의미 단락은 (가)에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표현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초려 삼간을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③ 두 번째 의미 단락이 (가)에서는 현실 극복 의지로 드러나고 있으며, (나)에는 자연을 초가에 들여놓겠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④ (가)는 낙구의 감탄사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나)와 (다)는 종장의 음수율을 통해 시상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세 번째 의미 단락은 (가)에서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태도로, (다)에서는 임과 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문산수익고등학교 (경기)

6. (다)와 <보기> 작품의 형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 기〉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긋치 얹미오랴.
 뭐은 님 오며는 소리를 뉘뉘 치며 쉼락 느리쉼락 반겨서
 내뉘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머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셔 도라가게 한다.
 신밭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 작자 미상

문산수익고등학교 (경기)

7. (가)의 '미타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의 ①과 ②에 들어갈 '미타찰'이 가지는 의미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 하시오.

*미타찰의 의미
 ①
 ②
 ③ 화자의 신분이 승려임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사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몰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나)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안에 빛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 주고
 나는 옷자락에 흡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兄)님!
 불렀다.
 오오나.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

광성고등학교 (서울)

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의지의 어조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대상과의 단절감을 느끼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혈육과의 사별을 노래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죽음을 맞이한 시적 대상의 괴로움을 영탄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② ㉡: 시적 대상이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 ③ ㉢: 시적대상과 화자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 ④ ㉣: 아우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하였다.
- ⑤ ㉣: 중의성이 나타난 구절로 ‘흡을 아래로 떨어뜨렸다’와 ‘아우와 하직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는 (가)의 기본적인 짜임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1~4구) → (B: 5~9구) → (C: 9~10)

- ① 성현: A에서 시상을 일으키고 B에서 이를 전개하다가 C에서 감탄사로 시상을 전환한 후 하강적 이미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 ② 민주: A에서의 상황을 B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 ③ 진태: A와 B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들을 C에 이르러 집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 ④ 현오: A와 B에서는 감탄어법으로 고뇌를 표출하다가 C에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어요.
- ⑤ 종문: 이러한 짜임은 시조에서 3장 형식과 종장 첫 구가 3음절의 감탄사나 시구로 시작하는 형식으로 계승되었어요.

01 구성 요소에 따른 작품 분석

창작 시기	조선 시대
화자	관동 지방을 기행하며 자연 친화적 자세와 선정의 포부를 드러냄.
구성	[서사] 강원도 관찰사 부임과 관내 순력 [본사]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 [결사] 동해의 달맞이와 풍류
어조	비유적, 영탄적
표현 방식	• 여정, 산수, 풍경, 고사, 풍속, 감회 등을 이야기함. • 3(4) · 4조,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음. • 영탄, 대구, 은유, 직유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함. •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는 표현이 많음.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연군, 선정의
포부

02 화자의 경서와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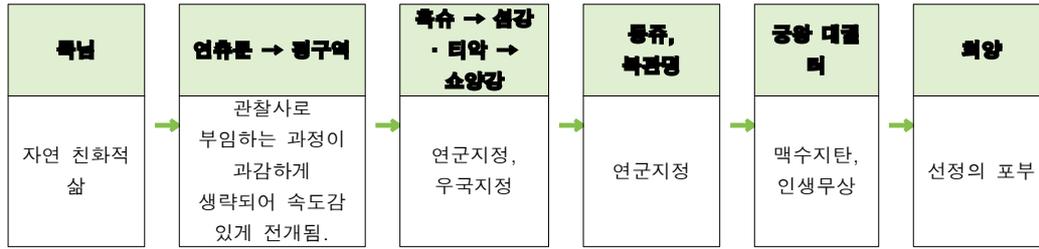
연군지경 (임금에 대한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흐마면 뇌리로다. •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멧(木筈)의 다히고저.
우국지경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문돌고자. •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예민 정신 선경의 포부 (백성에 대한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타 아니 볼 게이고. • 음애(陰崖)에 이온 플을 다 살아 내어스라. •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늬대되 다 뵈고저. •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눈화, 억만창성(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타 맛나 쏘 혼 잔 흐젓고야.
신선 사상 (신선을 동경하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 우개지륜(羽蓋芝輪)이 경포(鏡浦)로 느려가니, • 선사(仙槎)를 띄워 내어 두우(斗牛)로 향(向)흐살가, • 뉴하쥬(流霞酒) 그득 부어 돌드려 무론 말이, • 그티를 내 모라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03 화자의 내적 갈등

사회적 자아	↔	개인적 자아
유교적 충의 사상		도교적 신선 지향
관찰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갈등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욕망
금강산		관동 팔경(바다)

이 어정에 따라 화자가 경험한 것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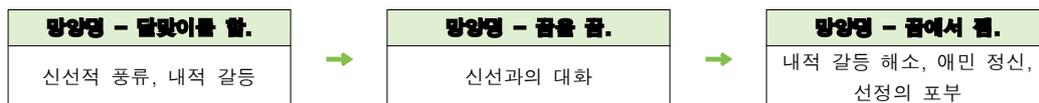
<본사 1> 금강산 유람



<본사 2> 관동 팔경 유람



<결사>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병(病)이 깊퍼 득림(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 팔백(八百) 리(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연츄문(延秋門)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옥절(玉節)이 알피 섰다.
평구역(平丘驛) 물을 그라 흑수(黑水)로 도라드니,
섬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岳)이 여기로다.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동주(東州)ㅣ 밤 계오 새와 북관정(北寬亭)의 올라하니,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峰)이 허마면 비리로다.
궁왕(弓王) 대궐(大關) 티희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난다 몰으논다.
회양(淮陽) 네 일홈이 마초야 그틀시고.
급당유(汲長孺) 풍치(風彩)를 고태 아니 볼 게이고.

(나)

영등(營中)이 무스(無事)하고 시절(時節)이 삼월(三月)
인 제,
화천(花川) 시내길히 풍악(楓岳)으로 버더 잇다.
행장(行裝)을 다 썰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퍼,
백천동(百川洞) 겨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가니,
은(銀) 그튼 무지계 옥(玉) 그튼 룡(龍)의 초리,
섯돌며7 쫓는 소리 십(十) 리(里)의 조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다)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디(眞歇臺) 고태 올라 안존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도 현스할샤.
늘거든 췌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짓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A] [늘흠시고 망고디(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그튼니 췌 잇는가.

(라)

기심디(開心臺) 고태 올라 등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萬) 이천봉(二千峰)을 녑녀(歷歷)히 혀여하니,
봉(峰)마다 밋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괴운 허터 내야 인걸(人傑)을 몬돌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턴디(天地) 삼기실 제 자연(自然)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할샤.
비로봉(毗盧峰)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느냐 놀듯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텃하(天下) 엇찌허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허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허거니 느려가미 고이힐가.

(마)

원통(圓通)골 그는 길로 스즈봉(獅子峰)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듀야(晝夜)의 흘녀 내여 창히(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바)

마하연(磨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드리 불등디(佛頂臺) 올라하니,
천심절벽(千尋絕壁)을 반공(半空)애 세여 두고,
은하수(銀河水)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기티 플터이셔 뵈기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니덕선(李謫仙) 이제 이셔 고태 의논허게 되면,
녀산(廬山)이 여기도곤 닛단 말 못허려니.

- 정철, <관동별곡>

광성고등학교 (서울)

1. 다음은 정철이 쓴 가사일기이다. (가)부분을 참고하였을 때, ㉠-㉤ 중 옳은 부분을 모두 고른 것은?

㉠병이 깊이 들어 요양 차 대나무 숲에 누워있던 중, 임금님께서 나에게 강원도의 관찰사로 가라는 소임을 맡기셨다. 나는 망극한 성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열린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께 관찰사의 상징의 옥절을 받고, 하직하고 물러나니 관찰사로 임명된 것이 실감이 났다.
강원도로 가는 도중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타기로 했다. ㉢그리고 여주와 원주를 거쳐 소양강이 흐르는 춘천을 지났다. ㉣임금이 계신 한양을 떠나니, 나라 걱정이 참으로 많이 되었다.
철원에 이르러 북관정에 올라가니 임금이 계신 남산이 보일 것만 같아 임금이 더욱 그리워졌다. 주위를 살펴보니, ㉤궁예왕의 궁궐터가 눈에 보였다. 그 곳에서는 까마귀와 까치가 천고흥망을 다 알고 울고 있었다.
철원을 떠나 회양으로 왔다. 회양으로 오니 급장유의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 급장유는 중국의 회양 지방을 잘 다스려 '와치화양'이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다. ㉠나는 급장유가 다시 살아 돌아와 그의 모습을 다시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 ① a, c, e
- ② b, c, d
- ③ b, c, d, e
- ④ c, d, e, f
- ⑤ b, c, d, e, f

광성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관찰사로서 관동 지방으로 가는 화자의 화려한 행장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였다.
- ② (다): 금강산 봉우리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라): <맹자>에 수록된 글과 관련하여 공자의 호연지기를 떠올리고 있다.
- ④ (마): 원통골의 좁은 길을 지나 찾아간 사자봉 앞 화룡소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보고 이를 용에 비유하고 있다.
- ⑤ (바): (나)에서 사용한 표현법과 동일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십이 폭포를 묘사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3. (다)의 [A]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작품은?

- ① 장부(丈夫)로 삼겨 나서 입신양명(立身揚名) 못 할지면
출하로 다 떨치고 일 업시 늘거리라
이 밧긔 녹록(碌碌)흔 영위(營爲)에 거리길 줄 이시라
-김유기
- ②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
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알나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호노라
-이조년
- ③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냇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신고 빈 배 저어 오노라
-월산대군
- ④ 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리기 울고 울고 가느니
-윤선도, <견희요>
- ⑤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約)
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호노라
-안민영, <매화사>

광성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참고할 때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 ① 승민: (가)에서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할 내용들을 과감하게 생략해서 속도감이 느껴지네.
- ② 지훈: (나)에서 드러난 계절적 배경은 3월이지만 가을의 금강산을 부르는 '풍악'을 쓴 이유는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야.
- ③ 창수: (다)에서 쓰인 '헌스토 헌스홀샤'는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라는 뜻이군.
- ④ 호준: (라)에서는 똑같은 생김새를 가진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뜻 없이 만들어진 자연에 감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군.
- ⑤ 민호: (바)를 통해, 화자는 금강산의 십이 폭포를 보며 여산 폭포가 천하제일이라고 썼던 이적선의 시를 떠올리고 있네.

광성고등학교 (서울)

5. (마)의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등(山中)을 미양 보라 동해(東海)로 가자스라.
 남여완보(籃輿緩步)하야 산영누(山映樓)의 올라하니,
 ㉠녕농(玲瓏)벽계(碧溪)와 수성(數聲)데도(啼鳥)는
 니별(離別)을 원(怨)하는 듯,
 정기(旌旗)를 펼티니 오색(五色)이 넘노는 듯,
 고각(鼓角)을 섰부니 해운(海雲)이 다 것은 듯.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를 켜티 두고 해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백구(白鷗)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었디 아는.

(나)

니화(梨花)는 볼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상대(義相臺)에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등만 내려하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녹농(六龍)이 바퇴는 동,
 바다히 쉰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텨동(天中)의 티스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시선(詩仙)은 어디 가고 히타(咳唾)만 나맛느니.
 텨디간(天地間) 장(壯)한 그별 쯔셔히도 흘셔이고.

(다)

사양(斜陽) 현산(峴山)의 턱툭(躑躅)을 므니불와,
 우개지륜(羽蓋芝輪)이 경포(鏡浦)로 느려가니,
 십(十)리(里) 빙환(氷紈)을 다리고 고터 다려,
 당송(長松) 울흔 소개 슬꺾장 퍼머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고주(孤舟) 히람(解纜)하야 덩즈(亭子) 우히 올라가니,
 강문교(江門橋) 너른 겨티 대양(大洋)이 거긔로다.
 동용(從容)한다 이 기상(氣象) 활원(闊遠)한다 더 경계(境界),
 이도곤 가진 디 쯔 어디 잇닷 말고.
 ㉡홍장(紅粧) 고스(古事)를 현스타 흐리로다.

(라)

진주관(眞珠館) 둑셔루(竹西樓) 오십천(五十川) 느린 물이,
 태백산(太白山) 그림자를 동해(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멱(木覓)의 다히고져.
 왕명(王程)이 유한(有限)하고 풍경(風景)이 못 슬미니,
 유희(幽懷)도 하도 할샤 객수(客愁)도 돌 디 업다.
 선사(仙槎)를 찍입 내여 두우(斗牛)로 향(向)하살가,
 선인(仙人)을 츄츠려 단혈(丹穴)의 머므살가.

(마)

저근덧 밤이 드러 풍낭(風浪)이 덩(定)하거늘,
 부상(扶桑) 지척(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드리니,
 셔광(瑞光) 천당(千丈)이 뵈는 듯 숨노고야.
 주렴(珠簾)을 고터 것고 옥계(玉階)를 다시 쓸며,
 계명성(啓明星) 듯도록 곳초 안자 바라보니,
 백년화(白蓮花) 현 가지로 누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늑대되 다 뵈고져.
 뉴하주(流霞酒) 꺾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영웅(英雄)은 어디 가며 사선(四仙)은 그 뉘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넷 그별 무자 하니,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송근(松根)을 베여 누어 풋즙을 얼끗 드니,
 썸애 현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디를 내 모르랴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명경(黃庭經) 일조(一字)를 었디 그릇 날겨 두고,
 인간(人間)의 내려와셔 우리를 쫓오논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현 잔 머거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히슈(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習習)하야 낭익(兩腋)을 추혀드니,
 구만(九萬)리(里) 당공(長空)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논화,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後)의,
 그제야 고터 맛나 쯔 현 잔 하차고야.
 말 디자 학(鶴)을 타고 구공(九空)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소(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쯔여 바다를 구버보니,
 기피를 모르거니 꺾인들 었디 알리.
 명월(明月)이 천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친 디 업다.
 -정철, '관동별곡'

(바)

제2수

보리밥 풋노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헛긔 물꺾의 슬꺾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제4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
 하랴.
 ㉢이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 윤선도, '만흥(漫興)'

광성고등학교 (서울)

6.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녕농벽계'는 시냇물을 '수성데도'는 새를 가리킨다.
- ② 주(화자)와 객(시냇물, 새)이 전도(顛倒)된 표현이다.
- ③ 감정 이입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이 바다로 향하는 것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7. (나)~(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봄이 끝나가고 있는 시간적 배경을 애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다)에서는 조용한 호수와 넓은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경포 호수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라)에서는 화자의 '우국지정(憂國之情)'을 느낄 수 있다.
- ④ (마)에서는 임금님의 은혜를 은유법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다), (라), (마)는 모두 도교적 신선사상이 드러난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8. <보기>는 (나)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 기〉

(나)는 낙산사 의상대에서 바라본 일출의 장관을 묘사하고 있다. 이 때 '해'는 (㉠)을(를) 상징하며, '녘구름'은 (㉡)을(를) 상징한다. 그런데 '아마도 녘구름 근처의 머물세라'는 사실 이 태백의 시 <등금릉봉황대>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그래서 정철은 '시선은 어디 가고 히타만 나맛느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 때 '히타'는 (㉢) (이)라는 뜻이다.

- | | | |
|---------|----|---------------|
| ㉠ | ㉡ | ㉢ |
| ① 화자 자신 | 간신 | 기침과 땀 |
| ② 화자 자신 | 총신 | 임금님의 선정을 칭송함 |
| ③ 임금 | 간신 | 임금님의 선정을 칭송함 |
| ④ 임금 | 총신 |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글 |
| ⑤ 임금 | 간신 | 훌륭한 사람의 말이나 글 |

광성고등학교 (서울)

9.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2어절로 쓰시오.

〈보 기〉

㉠은 '아름답고 조용한 경포에 비하니 홍장의 고사가 야단스럽다.'는 뜻으로, 경포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 옛날 박신과 홍장의 이야기가 참으로 그럴 만 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는 요나라 때 소부와 허유의 이야기를 통해 천하를 물려받아 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연에서 한가롭게 은거하는 것을 선택한 소부와 허유가 영리하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과 ㉡는 (㉠) 화자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표현상의 공통점이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의 ㉠,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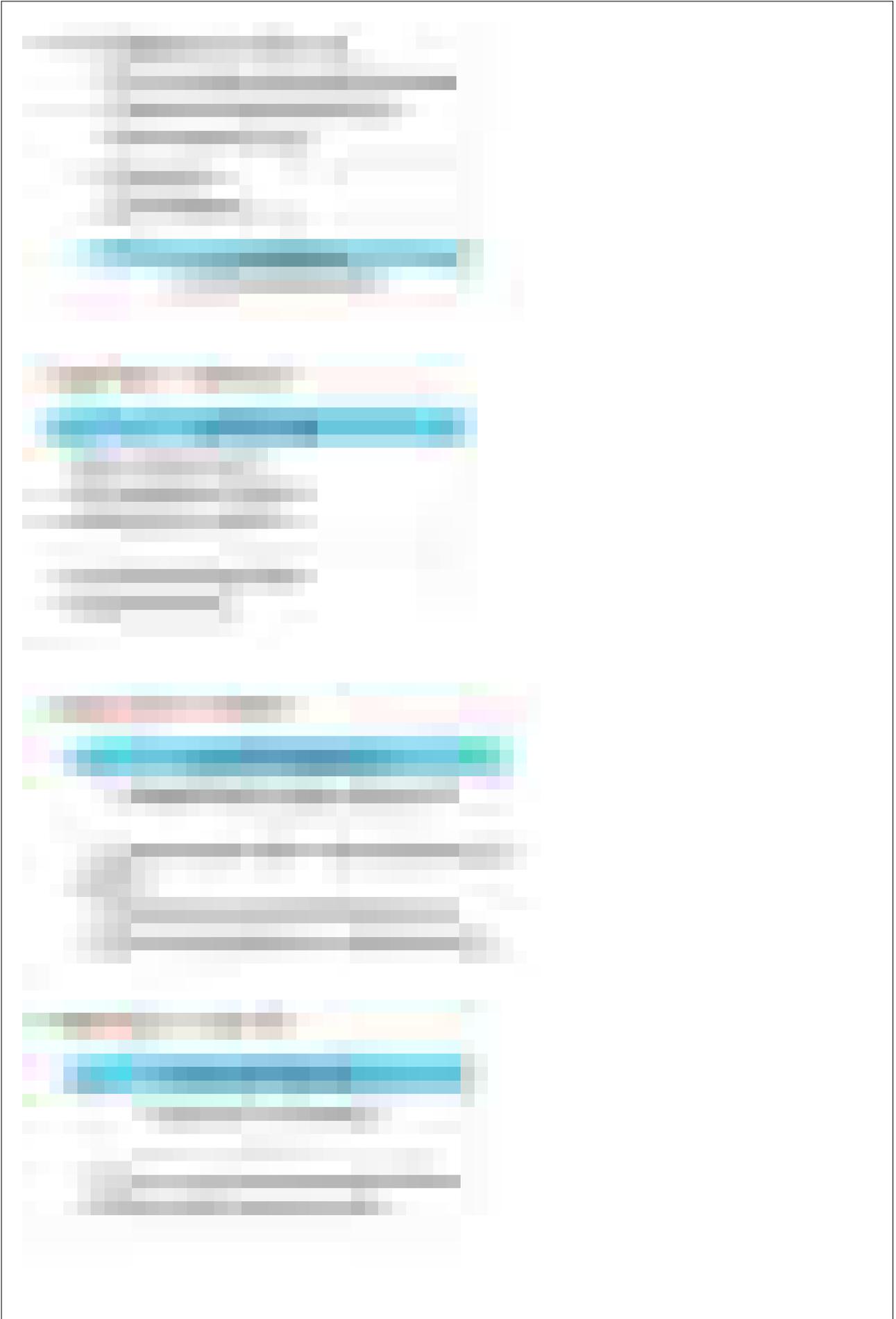
정철의 <관동별곡>과 윤선도의 <만흥>은 갈래는 다르지만 두 작품의 율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관동별곡>과 <만흥>은 한 행을 끊어 읽을 때 율격이 (㉠)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둘째, 정철의 <관동별곡>이 정격가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볼 때, 시조의 3장 중 (㉡)의 첫 음보와 가사의 마지막 행의 첫 음보가 모두 (㉢)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11. 화자의 내적 갈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조적인 시어 두 개를 (라)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 지 하계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승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載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맛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否塞)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숙절없이 노성(老成)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쭉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주대와 나뭇잎 이루어진 주견(主見)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흘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결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밀 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떼땀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말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몰스런 구두쇠를 보듯이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됃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 옥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어난 특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德量)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어.”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

(나)

그가 자기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

리로써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먼.”

“있다면 있구 없다면 읊는다, 들어 불라남?”

그는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돌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 그러?”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늑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먼그러. ㉠뻘어낸메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 풀구싶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 탄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 들어서 먹구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엔 그 집에서 춤 봤구먼.”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폐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편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중략>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웅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삭일 수가 없었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 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떡했나?”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디, 아까워서 그냥 내뺀지기두 거시기허구, 비싼 고기는 맛두 괜찮겠다 싶기두 허구…… 게 비늘을 대강 굽어서 된장끼 좀 허구, 꼬치장두 좀 풀구, 마늘두 서너 통 다져 놓구, 멸국두 좀 있게 지져서 한 고뿌덜씩 했지유.”

“뭣이 어찌구 어째?”

“왜유?”

“왜애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憤氣撐天)하여 부찌지를 못하였다.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달리 처리할 방법두 읊잖은감유.”

총수의 성깔을 덧들이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뒤통을 달은 거였다.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랫것들하고 따따부따22해 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 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해서 처먹어 버려? 에이…… 에이…… 피두 눈물두 없는 독종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

광성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이 특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이야기의 중심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연도와 지명을 제시하여 등장인물을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
- ④ 부분적으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뿐 아니라 인물의 내면세계까지 제시하고 있다.
- ⑤ 격이 낮고 속된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는 대상을 풍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만국>
국어 내신의 '찐 기출', 다 있어!
www.chongmangug.co.kr

광성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가. 비단 잉어의 가격과 유재필의 한 달 치 월급
 나. '나'가 유재필을 대하는 태도
 다. 유재필과 총수가 갈등하는 이유
 라. 유재필이 비단 잉어를 부정적으로 본 이유
 마. 유재필과 '나'의 직업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라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 ⑤ 나, 다, 라, 마

광성고등학교 (서울)

3.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읽은 뒤 학생들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傳)이란 한 인물의 일생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전통적 서사물로, 인물의 생애와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포함하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전'을 쓰는 목적은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초기 소설 중 일부는 이러한 전의 양식을 빌려 실제 인물의 생애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위인이 아닌 평범한 인물들이 이러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 ① 양화: '전' 양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허균의 '손곡산인전'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어.
- ② 유진: 소설의 제목을 통해 소설의 내용이 '유자'의 일생을 기록하고 인물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포함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어.
- ③ 동매: (가)에서는 인물의 생애와 그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특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지.
- ④ 애신: (나)에서는 유자의 일화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어 신이(神異)한 인물인 유자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교훈을 주고 있어.
- ⑤ 희성: '유자소전'은 우리 문학의 전통 양식을 잘 계승하여 창작된 현대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군.

광성고등학교 (서울)

4. <보기>를 참고하여 (나) 부분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문구는 풍자의 정신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을 남겼다. 산업화로 인한 배금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적 도리를 잃어버린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작가는 비단잉어를 물어주지 않은 것을 통해 산업화로 인해 생명이 경시되는 배금주의를 비판하고자 했다.
- ② ‘총수’를 비꼬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우리가 사는 현 세태를 비판, 풍자하고 싶었군.
- ③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유자’를 긍정적인 인물로 설정한 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기 위해서군.
- ④ ‘총수’는 물질주에 빠진 현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⑤ ‘총수’의 모습은 결국 인간적 도리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광성고등학교 (서울)

5. (나)와 <보기>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

양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일세.
 선비: 아니 뭐라고,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代夫)의 자손일세.
 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갑절: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조건>

- 1. ㉠, ㉡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4음절로 쓸 것.
- 2. 조건 1에서 작성한 표현 방식이 주는 효과를 고려할 때,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쓸 것.

(나)의 ㉠, ㉡과 <보기>에서 사용된 표현방식은 부정적인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 (을)를 유발하여 대상을 풍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의 전통이 잘 드러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載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종맛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否塞)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성(老成)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쫓대와 나뭇잎 이루어진 주견(主見)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흘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결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기거나 밝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밀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하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런 구두쇠를 보듯이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뽀뽀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목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특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德量)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여.”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

1970년, 내가 지금의 세종 문화 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의 문인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어름이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왔다. 10년도 넘어 된 해후였다. 이산(怡山)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 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끄적거리려 봤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가 없는 무명작가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에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에는 그 나름의 속셈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대학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동생을 내게 중매해 봤으면 하고 찾아본 것이었다.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놓인지 먹일 놓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해가 바뀌어 그 누이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하였다. 그는 처음 만났던 날 저녁에 내가 말술을 마시고도 양에 안 차 하는 데에 질려서 대번에 가위표를 쳐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史記)”를 한 질 주었더니, 그 후부터는 올 때마다 책 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루 주체를 못 하도록 더미로 답쌓이기 마련이었다.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 더미를 훑어 갔다. 장군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은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했던 것도 비밀비재의 경우에 속하였다.

<중략>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으나, 그는 훤탕 내도 아니고 시궁 내도 아닌 그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부득이 그 집으로 불러냈다는 것이었다.

<중략>

그는 이야기를 펼쳐 놓았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흥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의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 그러?”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먼그러. ㉡벨어낸메네도(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폴 구십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 탄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춤 봤구먼.”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엿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뿔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뭘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라 가지루다 객고(客苦)가 썩여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데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 댘으니께 과로해서 몸살기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몽18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이문구, <유자소전>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투리와 비속어를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연도와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성을 부여한다.
- ④ 주인공과 서술자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⑤ 설화적 구성을 통해 중심인물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7. 다음 작품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 중 윗글에 나타난 총수에 대한 유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이형기, '낙화'
- ②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말이 "있었노라." //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시면 //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 <중략> / 오늘도 여제도 아니 잊고 / 먼 후일 그때에 "있었노라."
-김소월, '먼 후일'
- ③ 그래 살아 봐야지 / 너도 나도 공이 되어 /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 살아 봐야지 /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왕자처럼 // 가볍게 떠올라야지 /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풀 / 둥근 공이 되어
-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④ MENU / 샤를 보들레르 800원 / 칼 샌드버그 800원 / 프란츠카프카 800원 // 이프 본느프와 1000원 / 에리카 종 1000원 //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 <중략> /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오규원, '프란츠 카프카'
- ⑤ 모란이 피기까지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 <중략>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재필이 좋아하는 인물 유형이다.
- ② ㉡은 겉으로는 계략에 능한 조조를 부러워 하지만 속으로는 버린다는 의미이다.
- ③ ㉢은 선우후락(先憂後樂)으로 나 먼저 바로서야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 ④ ㉣은 유재필이 스스로를 칭하는 말로 존경과 공경의 의미가 담겨있다.
- ⑤ ㉤은 유재필이 총수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9.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일체의 번뇌를 여의다.
- ② 딸 셋을 여의면 기둥 뿌리가 뽑힌다.
- ③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다.
- ④ 불행하게도 어린 행복은 아홉 살 때 그의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다.
- ⑤ 나병 병력자들 중 병을 여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이유는 이 약의 강한 독성 때문이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10. [A]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영금영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퐁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 저자에 나가 알아 보십시오"

-박지원, '광문자전'

- ① [A]와 <보기>의 등장인물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다.
- ② <보기>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③ [A]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A]와 <보기> 모두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글쓰기 양식인 '전'의 형식을 띠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는 주인공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6-(1) 그 사람의 손을 보면

1.③ 2.④ 3.대조적 이미지 사용, 동일한 시어나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4.② 5.가치가 있다 6.③ 7.④ 8.② 9.④ 10.① 11.'뉘는 행위': 대상을 빛나게 함 / 화자의 태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들로써 저마다의 가치가 있음 12.검은 것, 비누 거품, 쓰레기,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보잘 것 없다고 여기는 것들 13.노다지, 꽃봉오리 14.② 15.④ 16.①

6-(1) 엄마의 말뚝 2

1.④ 2.④ 3.③ 4.③ 5.③ 6.④ 7.② 8.③ 9.② 10.①⑤ 11.⑤ 12.③ 13.③ 14.④ 15.④ 16. ㉠저승사자, ㉡군관, ㉢아들 17.③ 18.⑤ 19.② 20.⑤ 21.④ 22.④ 23.① 24.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5.④ 26.② 27.㉠: 남북 분단에 따른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 ㉡: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 28.과거의 아들이 어머니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그 일을 현재 환각으로 겪게 됨. 29.⑤ 30.③ 31.④ 32.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33.④ 34.② 35.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 36.② 37.③ 38.③ 39.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6-(2)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1.② 2.① 3.③

7-(1) 향가와 시조

1.④ 2.④ 3.② 4.⑤ 5.③ 6.공통점: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 (다)에 비해 <보기>의 중장이 많이 길다. 7.화자와 누이가 재회할 공간 /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 8.⑤ 9.① 10.④ 11.미타찰 12.관이 내렸다 13.④ 14.⑤ 15.⑤ 16.① 17.⑤ 18.④ 19.② 20.④ 21.③ 22.① 23.⑤ 24.② 25.10구체 향가의 4.4.2구조는 시조에서 초중.종장으로 계승 / 향가의 낙구 감탄사는 종장 첫 3음절로 계승 26.④ 27.⑤ 28.③ 29.⑤ 30.① 31.② 32.① 33.과장, 열거 34.③ 35.④ 36.① 37.③ 38.⑤ 39.④ 40.② 41.안빈낙도 42.님과 오래 있고 싶음 43.② 44.(1) 개, 닭 (2)해학 45.④ 46.④ 47.③ 48.② 49.공통점: 사랑하는 임을 그리

워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처지 / 차이점: 3장(초.중.종장) 구조로 종장에서 주제를 집약함 50.③ 51.① 52.① 53.⑤ 54.④ 55.㉠:10 ㉡:낙구 ㉢: 고려 ㉣: 3음절 56.② 57.④ 58.③ 59.⑤ 60.④ 61.⑤ 62.③ 63.④ 64.② 65.① 66.④ 67.⑤ 68.낙구가 감탄사로 표현됨

7-(1) 관동별곡

1.② 2.① 3.⑤ 4.④ 5.혈벗고 굶주린 백성을 살리겠다. 6.⑤ 7.③ 8.⑤ 9.고사를 불러 10.㉡: 4음보, ㉢: 종장 ㉣: 3음절 11.왕명, 선인 12.진선, 근심할 일은 먼저 하고 즐거워 할 일은 나중에 함. 13.선우후락 14.④ 15.③ 16.① 17.④ 18.⑤ 19.③ 20.②④ 21.③ 22.⑤ 23.② 24.① 25.② 26.④ 27.① 28.③ 29.⑤ 30.① 31.③ 32.④ 33.④ 34.⑤ 35.② 36.①② 37.⑤ 38.① 39.④ 40.⑤ 41.①② 42.연군지정(戀君之情) -(㉠) 인생무상(人生無常) -(㉡) 우국지정(憂國之情)-(㉢) 선정(善政)에의 포부 -(㉣) 신선(神仙) 사상 -(①) 43.③ 44.④ 45.⑤ 46.① 47.③ 48.천년된 늙은 용 / 바람과 구름 / 삼일 동안 내리는 비 / 천년된 늙은 용이 바람과 구름을 얻어 3일동안 비를 내리게 함. 49.② 50.④ 51.③ 52.② 53.⑤ 54.⑤ 55.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한탄함 56.③ 57.① 58.② 59.② 60.④ 61.④ 62.예 사흘 머문 후, 스선 63.③ 64.⑤ 65.④

7-(2) 유자소전

1.② 2.⑤ 3.④ 4.① 5.언어유희, 웃음 6.② 7.④ 8.⑤ 9.④ 10.⑤ 11.③ 12.④ 13.④ 14.① 15.⑤ 16.④ 17.③ 18.② 19.④ 20.② 21.④ 22.언어 유희, 웃음 유발

8-(1) 국어의 변천

1.⑤ 2.④ 3.① 4.⑤ 5.㉠ ㉡, ㉢, ㉣, ㉤, ㉥ ㉦, ㉧, ㉨, ㉩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③ 12.⑤ 13.② 14.③ 15.⑤ 16.'爲嬴하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야'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東國'에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흙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